

타이어 점검은 안전운전의 출발 배터리 상태 확인...예열은 30초

■ '최강한파' 겨울철 차량 관리 요령

겨울이 오면 자동차 트렁크에 스노우체인과 스프레이 체인은 기본으로 구비해야 하는 것이 상식이다. 안전을 위한 준비는 다소 과해도 아깝지 않다. 지금부터라도 차량 월동준비에 돌입해야 한다. 보다 나은 차량 관리를 위해 평소 헛갈렸던, 그리고 궁금했던 사항을 정리해 봤다.

타이어 마모 상태 점검

◇안전 관리 첫 단추 타이어 점검 '교체주기 살펴라'

겨울철 안전운전을 위한 첫 단추는 타이어 점검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아무리 서행으로 조심하 운전한다 한들 마모가 심한 타이어라면 안전은 말짱 도루묵이 되고 만다.

타이어 마모 상태는 백원짜리 동전으로 간단하게 체크해볼 수 있다. 타이어 트레드(타이어에서 노면과 닿는 제일 바깥쪽 부분) 홈 부분을 동전으로 눌렀을 때, 이순신 장군 갑옷가 가려지면 타이어의 마모 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타이어 교체 주기와 마모 상태를 고려해 바꿔야겠다고 판단될 경우 겨울인 만큼 안전한 윈터 타이어를 장착할 것을 권한다.

하지만 요즘에는 자동차 성능이 좋아져 주변 환경과 운전자 성향에 따라 4계절 타이어에 스프레이 체인을 구비하고 다녀도 충분한 경우가 많다.

운전자가 윈터 타이어를 장착하기로 결정했다면 고려해야 할 사항이 한가지 더 있다. 차량의 구동 방식에 따른 차이다. 터플 구동은 앞바퀴에서 방향과 동력을 함께 컨트롤해 앞바퀴만 접지력을 확보하더라도 큰 문제가 없지만 후륜 구동 차량은 그렇지 않다. 후륜구동 차량의 뒷바퀴에만 윈터 타이어 혹은 체인을 장착할 시 노면과 뒷바퀴 간 마찰이 발생해 운동성에 문제가 없을지라도 앞바퀴가 마찰력을 잃어 방향성을 상실할 위험이 존재한다. 따라서 후륜구동 차량은 윈터 스노우와 체인, 스프레이 체인을 사용할 때 앞뒤로 모두 적용해야 한다.

혹한에 방전은 치명적

◇특하면 배터리 방전, 배터리 상태 확인 필수

겨울은 자동차 배터리에 치명적인 계절이다. 혹한일수록 더욱 그렇다. 배터리 전압은 주변 기온에 영향을 받곤 하는데 낮은 기온이 배터리 전압을 낮추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곤 한다. 이 때문에 배터리가 방전돼 시동이 걸리지 않는 이른바 '먹통' 현상이 빚어지게 된다.

최근 자동차마다 차량 내 블랙박스, LED 등 상시 전원을 요하는 제품들이 많아진 점도 겨울철 자동차 배터리 방전을 갖게 만드는 요인으로 지적된다. 산간 지역에서 배터리가 방전될 경우 히터조차 틀 수 없기 때문에 매우 위험한 사고로 변질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주기적으로 배터리를 교체해주는 게 중요하다. 겨울이 오기 전이나 초겨울에는 반드시 한 번쯤 배터리 충전 상태를 점검해야 한다.

배터리 충전상태 표시기를 보면 색상상 따른 배터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 초록색은 정상, 검은색과 하얀색은 각각 충전이 필요한 상태와 교체해야함을 의미한다. 배터리 표시기가 별도로 없는 모델도 있기 때문에 평소보다 시동이 원활하지 않거나 공회전 상태에서 평소와 다르게 잔진동이 일어나지 않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

자동차를 일정 기간 방치해두면 자연스럽게 배터리가 소모된다. 따라서 2~3일에 한 번씩 시동을 걸어주고 가볍게 시승하는 게 차량 유지에 도움이 된다. 차를 추운 지방이나 야외에 세워둘 경우 보온 커버나 수건으로 배터리를 감싸 성능 저하를 막는 것도 좋은 방법 중 하나다.

무리한 예열은 오히려 '독'

◇예열과 후열은 '30초'면 충분

겨울철에 유독 차량 예열과 후열이 강조되는 이유는 엔진오일 유동성과 관련 있기 때문이다. 예열은 각종 밸브와 실린더 내 온도를 적정 상태로 높이기 위해 실시되기도 하지만 오일이 엔진 각부에 골고루 순환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차원에서 시행되기도 한다. 예열을 충분히 하지 않을 경우 엔진 내부 실린더·피스톤·크랭크축·캠축·각종 베어링 부분에 마모와 무리가 가게 된다.

하지만 시간이 문제다. 전문가들이 권하는 시간은 30초 내외다. 과거와 달리 최근 출시된 차들은 엔진을 비롯한 차량 내부 부품 성능이 전반적으로 향상돼 1~2분까지 예열을 할 필요가 없다. 전문가들은 굳이 시동을 건 이후 엔진 RPM이 떨어질 때까지 오래 기다리고 있을 필요가 없으며 시동을 걸고 안전벨트를 착용하는 등 잠깐의 시간을 가진 후 바로 출발하는 게 좋다고 말한다. 이 과정에서



타이어 마모상태는 백원짜리 동전으로 간단하게 체크할 수 있다.



배터리 충전상태 표시기를 보면 색상상 따른 배터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



최근 출시된 차들은 성능이 향상돼 1~2분까지 예열을 할 필요가 없다.

서서히 속도를 높여나가는 방법이 제자리에서 공회전을 통해 예열을 하는 것보다 자동차 엔진 관리에 더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예열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후열이다. 후열은 자동차 주행을 끝난 후 시동을 끄지 않고 엔진에 열기가 식을 때까지 기다리는 단계로 오일 고착화를 방지하기 위해 실시한다. 고속도로 주행 직후는 엔진 내부 열이

굉장히 높은 상태일 가능성이 높다. 이때 바로 시동을 꺼버리면 냉각장치 전원으로 작동하지 않게 된다. 따라서 운전자는 터빈 내부에 남아 있는 오일이 타거나 고착되지 않게 목적지 도착 전 미리 3분 정도 천천히 서행해주는 게 좋다. 저속 주행을 여의치 않다면 주차 이후 예열과 마찬가지로 30초 내외로 기다려주는 시간을 갖는 게 필요하다. /김대성기자bigkim@kwangju.co.kr



람다 3.3 T-GDi 엔진이 장착된 기아차 '스팅어'.

기아차 '람다 3.3 T-GDi' 엔진 '2018년 세계 10대 엔진' 선정

미국 자동차 매체 '워즈오트'

리게 됐다. 앞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년 연속 타우 엔진이 선정됐고 이후 2012년 감마 엔진, 2014년 투싼 수소전기차 파워트레인(동력전달체계), 2015년 쏘나타 PHEV(플러그인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 2017년 카파 엔진이 10대 엔진으로 선정됐다.

현대·기아차 관계자는 "워즈오트 10대 엔진은 자동차 엔진 분야의 아카데미 상으로 불릴 만큼 권위가 있는 상"이라며 "친환경 모델을 포함, 소형부터 대형까지 현대·기아차의 우수한 파워트레인 기술력을 인정받은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수상으로 현대·기아차는 10대 엔진 목록에 모두 여덟 차례 이름을 올

렸다. 현대·기아차 동차는 스포츠 세단 스티링어 등에 실린 람다 3.3 T-GDi 엔진이 미국 자동차 전문매체 '워즈오트' 선정 '2018년 세계 10대 엔진'으로 뽑혔다. 3.3 T-GDi 엔진은 최대 출력과 토크(회전력)가 각 370마력, 52kg·m에 이른다. 따라서 스티링어 3.3 모델의 제로백(정지상태에서 시속 100km에 이르는 시간)도 4.9초에 불과하다. 람다 3.3 T-GDi 엔진은 기아 스티링어 뿐 아니라 제네시스 EQ900, G80 스포츠, G70 모델에도 탑재됐다. 이번 수상으로 현대·기아차는 10대 엔진 목록에 모두 여덟 차례 이름을 올

연령 낮을수록 차보험 갱신 때 보험사 많이 바꾼다

보험개발원 1208만명 조사

20대 4명 중 1명이 갈아타

연령이 낮을수록 자동차보험 만기 때 다른 보험회사의 보험으로 바꾸는 경향이 높았다. 특히 20대는 4명 중 1명이 보험회사를 갈아탔다.

18일 보험개발원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9월까지 개인용 자동차보험의 재가입자 1208만명 중 82.0%(990만명)가 기존과 같은 회사의 보험에 가입했다.

나머지 18.0%(218만명)는 보험회사 변경해 가입했다. 이들 중 32.8%(72만명)는 보험회사뿐 아니라 판매채널도 바꿨다. 예컨대 A사의 보험설계사를 통해 자동차보험에 가입했다가 B사의 인터넷 보험으로 바꾸는 식이다.

같은 보험회사로 재가입한 이들 중 94.1%가 판매채널도 유지해 이동 가입자와 다른 모습을 보였다.

이동 가입자의 성향을 보면 가입자의 연령이 낮을수록 이동률이 높았다. 20대는 24.5%가 보험회사를 변경한 반면 60대 이상은 그 비율이 16.5%였다.

보험 가입 기간이 짧을수록 이동률이 높기도 했다. 보험 가입 기간이 3년 이하인 가입자의 이동률은 22.7%이고 7년 초과는 16.9%였다.

연령이 낮을수록 가격 비교와 같은 정보 탐색에 상대적으로 능해 자신에게 유리한 보험회사로 변경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풀이된다. 연령이 낮으면 보험 가입 기간이 짧을 수밖에 없기도 하다.

무사고로 할인·할증등급이 개선된 가입자의 이동률은 17.2%로, 사고로 등급이 악화한 가입자(20.6%)보다 낮았다. 가입자가 낸 보험료 규모가 30만원 이하인 경우 이동률은 13.6%이고, 100만 원 초과인 경우는 22.2%였다.

사고로 보험료가 할증되고 납입 보험료가 많을수록 가격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이동률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보험개발원은 "보험회사가 타사로 이동하는 가입자의 성향을 분석해 우량 고객 이탈방지를 위한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며 "경험통계를 기반으로 한 합리적인 보험료 차등화로 우량 고객을 선별하는 노력이 더욱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지오옥션 부동산 중개법인(주)

20년경력 조여사 010-6211-4585

경, 공매 컨설팅

수익형 추천

- ★ [건물] 광산구 월곡동 복합스포츠타운 수익률최상 대지 3,906㎡ 건물 2,689㎡ 매매 81억 투자자가능 (수영장, 키즈카페, 사우나)
- ★ [건물] 서구 쌍촌동 메인상권 지하2층 지상10층 (사옥최적합 대로변, 병원가능) 대지 777㎡ 건물 5,900㎡ 매매 55억 (보17억1천 월1천1백 5십만)
- ★ [건물] 동구 동명동 대로변접 상가주택건물 5층 대지 452㎡ 건물 1,464㎡ 매매 17억 (사우나)
- ★ [건물] 광주 광산구 송정동 일반상업지역 위치좋은 상무대로변 대지 1342㎡ 건물 413,49㎡ 매매 49억 (주상복합, 쇼핑타운적합부지)
- ★ [건물] 광주 동구 지산동 중심상권 상가 밀집지역 위치좋은 지하층~지상5층 대지 198㎡ 건물 729㎡ 매매 25억 (보5억6천500만)

병원

- ★ [의료시설] 광주시 북구 신안동 지하층 지상4층 토지 552㎡ 건물 995㎡ 최신시설 매매 30억 월수익1천6백5십만
- ★ [의료시설] 광산구 신가동 요양병원 지하층~지상4층 대지 3,000㎡ 건물 3,568㎡ 매매 56억
- ★ [의료시설] 광주시 남구 주월동 지하층 지상7층 토지 1,490㎡ 건물 6,646㎡ 최신시설 매매 75억
- ★ [의료시설] 광주시 서구 농성동 지상5층 토지 2,319㎡ 건물 3,998㎡ 매매 73억
- ★ [의료시설] 전남 화순읍 신기리 지하층 지상4층 토지 8,630㎡ 건물 6,300㎡ 매매가 (상담요양)

공·경매 교육안내

저희 공·경매전문기관인 지오옥션부동산중개법인(주)에서는 그 동안 쌓아온 경험을 토대로 아래와 같이 공·경매 실전교육을 하고자 하오니 관심이 계신 분들의 참여 바랍니다.

- 아 래 -

1. 일시 : 11월 중순부터 매주 1회 저녁반
2. 장소 : 본 중개법인 강의실
3. 교육내용 : 이론과 실무를 겸한 실전공·경매 과정
4. 대상 : 1) 공인중개사 2) 공·경매에 관심이 있는 자 등
5. 수강료 및 교재대는 실비로 함
6. 강사
 - 1) 본 법인 이사
 - 2) 전, 조선대학교 평생교육원 공·경매과정 겸임교수
 - 3)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실무교육·매수신청교육 교수

*기타 자세한 문의는 본 사무실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 전남 병원건물(요양, 한방) 매매, 임대, 다량보유 / 사우나건물 전문상담

공인중개사 김재훈 062-714-2251